

“무미 건조하고 단조로움에 할애할 시간은 없다. 일할 시간과 사랑할 시간을 빼고 나면
다른 것을 할 시간이 없다.” - 가브리엘 코코 샤넬.

멕시코 정치 사회 경제 부분에서는 멕시코 국민들 사이에서 제일 많이 화제되고 있으며, 멕시코 거주 한인 및 사업체에게 직간접 영향되고 있는 소식을 선별하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멕시코 정치 사회**”: 2024 년 6 월 대선과 함께 진행되는, 6 년 단임 멕시코 시장 선거에 있어서, 여당측 움직임, 출마를 직간접 공식화한 여당측 후보들과 함께, 내년 지방 선관위 공고 선거 일정을 설명하였다.
- “**멕시코 경제**”: 에너지 및 식량 자주권 확립과 함께, 노령층에 대한 복지 혜택 확대, 비효율성 원인, 적자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공기업 되살리기를 하고 있는 현대통령 AMLO 행정부 경제 정책을 뒤돌아 보고, 위험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고민하여 보았다.
- “**멕시코 법률**”: “법률 조항 해석”이라는 주제 속에서, 사업 활동을 하기전, 사전 검토되어야만 하는 특정 조항은 어떤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것인지? 및 사법부 판례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판례는 행정 기관 상대 강제되지 않지만, 세무 조사등 분쟁에 있어서 참고된다는 점에 있어서, 판례 기초되는 판결문 이해 필요성을 안내하였다.
- “**멕시코 조세 & 세무**”: 직원이 어떤 이유 (자진 사퇴, 해고) 원인, 고용주 등록 사회보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다면, 노무관계 종료로부터, 사회보험청은 얼마동안 등록을 유지하고, 전제조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와 함께, 직장에 다니지 않고도, 사회보험 혜택을 누릴수 있는 합법적 방법을 소개하였다.
- “**멕시코 한인 사회 이모저모**”: 2024 년 대선, 지방 자치주 주지사 선거 및 국회상하원 투표를 앞두고, 일부 연방 및 지방 공무원 비리 행위에 대한 공지를 하였다.
- “**멕시코 조세 감사 행정 실무 및 법적 대응 (1)**”: “1 장 조세 원칙 및 분류”에서, 조세 관련 일반성 원칙 및 불소급 원칙을 설명하였다.

※ 멕시코 정치 & 사회

2024 년 멕시코 시티 시장 선거 및 여당 움직임

내년 2024 년 6 월 2 일 6 년 단임 멕시코 대통령 선거와 함께, 6 년 단임 멕시코 시티 시장선거도 동시에 진행된다 (또한, 3 년 임기, 멕시코 시티 지방국회 의원 66 명 선거 및 16 개 구청장 선거 진행).

멕시코 시티 시장은 한국 서울 시장과 비견될 정도로, 다른 지역 대비 정치적 위상이 상당히 높은 관계, 시장에 선출된다면 대권 도전과 같은 정치적 꿈을 이룰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AMLO 현대통령 역시, 멕시코 시티 시장 출신이고, 현재 경선에 불복하고 있는 전외무부 장관 마르셀로 에브라드 역시, 멕시코 시장 출신).

이번달 초, 여권 연합 및 야당 연합측은 모두 내년 대권 후보들을 최종 결정한 가운데, 이제는 멕시코 시티 시장이라는 차기 선출직 공무원을 향한 움직임이 치열하다.

(** 멕시코 시티 시장과 더불어 2024 년에는 총 9 개 주지사 선거 진행: 치아파스, 과나후아토, 할리스코, 모렐로스, 푸에블라, 타바스코, 베라크루스, 유카탄)

야당측 움직임은 다른 소식지를 통하여 전달할 예정으로, 현소식지는 여당측 멕시코 시티 후보자들 동향 관련, 설명하기로 한다.

여당 (모레나: Morena: “국민 재탄생 운동 (Movimiento Regeneracion Naional)” 의미)은 오늘 25 일 및 내일 26 일 양일간 인터넷을 통하여 후보자 접수를 받고, 서류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자질을 검증, 여론 조사를 통한 후보 지지율 측정 기초, 10 월 30 일 최종 후보자 공지를 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성평등 차원, 각 2 명 여성 및 남성 후보를 선택하고, 공직에 있는 후보는 내년 선거일 180 일 이전에 (2023 년 12 월 5 일전) 사임할 의무가 있다.

오늘 9 월 25 일 월요일 현재, 멕시코 시티 시장직에 도전을 공식화 후보들은 총 5 명으로 압축된다.

1. 멕시코시티 전지방검찰청장 “오마르 가르시아 아르프치 (Omar Garcia Harfuch)”
2. 멕시코 시티 이스타팔라파 구청장, “클라라 브루가다 (Clara Brugada)”
3. 멕시코 여당 대표 “마리오 델가도 (Mario Delgado)”
4. 대통령 AMLO 자문위원 “라사로 카르데나스 (Lazaro Cardenas Batle)”
5. 멕시코 연방보건부 차관 “로페스 가텔 (Lopez-Gatell)”

모든 사람들이 훌륭하지만 (?), 몇몇 후보들만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면면이 있다.

1982 년생 “오마르” 후보는, 클라우디아 전멕시코 시티 재임시절이라고 할 수 있는, 2019 년 10 월부터 2023 년 9 월 9 일 공식 사퇴까지, 멕시코 시티 지방검찰청장으로 활약하였고, 임기 중, 2020 년 6 월 26 일 오전 6 시 38 분 멕시코 시티 레포르마 거리에서 출근 도중, 탑승 차량 상대 수십발 탄환으로, 부상당하여 언론에 집중 조명된 적이 있다.

1972 년생 “마리오” 후보는 여당 대표 직무중에 있는데, 지난 2 주전, “나는 멕시코 시티를 잘 관리할 능력이 있습니다!!!”를 공개, 멕시코 시티 시장직에 뜻이 있음을 직접 피력함으로써, 멕시코 시티 시장 낙점에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후보와 판사 (?)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통성에 대한 화두 제기되었다.

1969 년생 “로페스 가텔”후보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동안, 대한민국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과 같이, 언론에 집중 조명을 받음으로써, 혜성처럼 나타난 후보라고 평가되고, 지난 금요일 22 일 AMLO 오전 정례 언론미팅자리에서 멕시코 시티 시장직에 도전할 것임을 공개한 상황이다.

멕시코 시티 지방선관위는 시장 선출에 있어서 아래 일정이 공고되고 있다.

- 후보자 공직 퇴임: 2023 년 12 월 5 일전
- 후보자 등록: 2024 년 2 월 8 일부터 동월 15 일까지
- 선거 운동: 2024 년 3 월 1 일부터 동년 5 월 29 일까지
- 투표일: 2024 년 6 월 2 일
- 선거 결과 공지: 2024 년 6 월 2 일부터 동월 5 일 사이
- 최종 우승자 확인 공식 서류 전달: 2024 년 6 월 6 일부터 동월 8 일 사이

※ 멕시코 경제

2024 년 정부 재정 위험 요소

한국포함, 전세계적으로 고물가, 긴축 재정 및 경기 침체 상황속에서, 라틴 아메리카에 한정하였을 때, 현재, 아르헨티나 인플레이션이 연평균 환산 100%를 초과하는 측면을 보면, 멕시코는 지난주 금요일 22 일 통계청 발표 기초, 연평균 환산 4.4% 기록하면서, 상당히 양호하다고, AMLO 거시 경제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양호한 멕시코 경제 환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및 니어쇼어링과 같은 산업 경향도 한몫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멕시코 치안부분은 개선되어야만 하지만, 위와 같은 긍정적 국내 경제 상황에서, 2024 년 10 월 1 일, AMLO 대통령직 임기 만료를 앞두고, 차기 행정부 재무 불건전성 위험이 있음을 일부 언론은 타진하고 있으며, 주요 지적부분들은 아래와 같다.

1. 연금 확대

전세계적으로, 연금 수령 연령을 높이고, 연금액을 감소하는 추세에서, AMLO 행정부는 역행을 하고 있다. 즉, 2024 년 국회 제출 정부 지출안을 보면, 연금 부분에 MX\$ 1,991,000 백만페소를 책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총생산 대비 5.8%를 차지하고 있다.

2023 년 65 세 이상 노령층은 전체 인구 대비 8.2%를 차지하지만, 2050 년에는 17.0% 분포될 것으로 재무부 (SHCP)는 예상하는 가운데, 2023 년 65 세 이상 노령층이 두달마다 받는 MX\$ 4,800 은 내년에는 25% 증가된 MX\$ 6,000 상향 조정될 것임이 이미 공지된 상황이다.

사회 개발부 (Secretaria de desarrollo social)에서, AMLO 대통령 취임과 함께, 복지부 (Secretaria de Bienestar) 개명된 행정부서는 “65 세 이상 노령층 상대 복지 연금 (Pension para el Bienestar de Adultos Mayores)” 명목으로, 총 예산 중 85% (MX\$ 543,933 백만페소) 상당을 지출하고 있다.

멕시코 통계청은 1995 년 평균 연령 21 세, 2000 년 22 세, 2005 년 24 세, 2010 년 26 세, 2015 년 27 세, 2020 년 29 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평균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의료 기술 발달로 인하여, 수명이 증가하는 상황속에서, 차기 정부(들)에서 위험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2. 비효율적 공기업 (석유공사 및 전력청) 지원 확대

에너지 자급자족을 통한 에너지 주권 회복을 외치고 있는 AMLO 행정부는 방만한 공기업 구조 개선을 통한 효율성 증대와 클린 에너지로 대변되는 대체 에너지 자원 확보라는 세계적 경향을 외면하고, 지난 페냐 니에토 정부 시절 추진 공기업에 민간기업 경쟁력 정책 도입과 친환경 에너지 육성이라는 에너지 정책을 백지화하였다 (관련하여, 멕시코는 미국, 캐나다, 스페인등 주요 투자국들과 마찰관계 있음).

즉, 귀중한 석유자원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지적되지만, 이를 외면하고, 향아리에서 빠지는 물보다 더 많은 물을 투입함으로써, 재무적 건전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개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필자와 같은 보통 사람도 알 수 있는 것을 AMLO 행정부는 왜? 외면하려고 하는 지 모르겠다. 장래 (백년대계) 멕시코 전체 국가를 생각한다면, 공기업 소속 직원들의 많은 비판 및 예상 파업과 같은 아픈 출혈도 있겠지만, 과감하게 인적 조정 선행하고, 도스 보카스와 같은 신정유 시설과 미국 텍사스 소재 Deer Park 정유 시설 지분 확보등과 같은 조치가 시행되는 것이 순서되었어야만 한다.

근래, 친환경적이라고 각광받고 있는 전기 자동차 생산 및 운행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기 배터리 산업등과 같은 연계 산업 발달과 더불어), 석유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 산업 및 기타 관계 산업들은 최소 20 여년 동안은 계속하여 유지될 것이라고 필자는 확신하는 가운데, AMLO 가 진정으로 멕시코를 생각한다면, 추후 세대를 위하여, 현 세대 아픔 공유를 국민들에게 설득하여야만 할 소명이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페멕스 (PEMEX) 명칭되고 있는 멕시코 석유공사는 대한민국에서는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귀중한 석유자원을 추출, 가공 및 판매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으로, 2024 년 정부 지출(보조)만 보면, MX\$ 171,000 백만 페소 예산이 잡혀있다.

이밖에도, AMLO 행정부에서 벌여놓은 사업을 보면, 펠리페 앙헬레스 신공항, 멕시코 남부 마야열차등 언제까지 자체 수입만으로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정상화가 될지 미지수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많다.

※ 멕시코 법률

법률 해석

변호사로서, 세무 분쟁 관련 법원 상대 전문 의견을 제출하는 감정인자격으로, 많은 법원 사건서류를 열람하고, 판사들과 대화를 나누며, 사건에서 적용되고 있는 법조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다보면, 이론 상, 법에 정통해야만 하는 판사 (전문가)들도 법해석을 잘못하는 사례들을 종종 접한다.

특히, 분쟁소지가 많은 판례를 도출하는 법원 판결문을 분석하다보면, 탁상공론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근래, 민간 사업체들간 상계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적용 불가하다는 대법원 판례 및 사문서 증빙 법적 효력을 사례한 판례 및 기초 (원천) 판결문 논리를 생각하면, 전자경우, 실사업활동을 참고하지 않은 사법부 테두리안에서의 (우물안 개구리식) 해석이라고 할 수 있고, 후자는 판결문 논리와 상충되지 않은 잘못된 요약 판례라고 필자는 감히 단정할 수 있다.

추상적인 법률조항에 대한 정확한 의미 파악을 위하여, 나름 전문가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법원 판례 열람을 항상 강조하며, 이를 통하여 의뢰인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사전에 사건방지에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이 전문인의 자세이지만, 자세를 망각한 전문인에 의하여 의뢰인들은 피해를 입는 경우를 근래들어 많이 듣고 접하고 있다.

법률 해석은 실무적 측면보다는 상당히 학구적으로 흘러서, 일반 의뢰인을 상대로 하는 현소식지에 게재하는 것에 망설였지만, 일부 분들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간단하게 법률 해석에 대한 역사를 소개하고, 멕시코 법률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법해석은 성서와 같은 종교 교리를 해석하는 것에 출발하였다고 (성서 주석학), 알려져있으며, 이후, 프리드리히 카를 폰 사비니로 대표되는 역사적 바탕에 근거한 법률해석, 프랑수아 제니에 의한 입법 이후, 구체적 상황을 참조하여, 법률을 해석하여야만 한다는 해석이론등으로 발전하였다고 요약 할 수 있다.

이제 해석을 하는 주체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입법 해석:** “법률에 xx 는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법률 처음 몇 개 조항들에 설명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 **행정 해석:** 행정법에서 많이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연방세법 상, “자동차는 \$xxx 까지 공제 가능하다”고 서술되었다고 가정시, 국세청과 같은 관계 조세당국은 조례 (RMF)를 통하여, “자동차는 xx 를 의미한다”라고 안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사법 해석:** 법원에서 해석하는 것으로, 하위법원들이 의무준수해야만 하는 의무 판례 (jurisprudencia)와 참조될 수 있는 소수 판례 (tesis aislada)로 구별된다.

멕시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위 3 개를 모두 참고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하나만 보아야한다면, 사법 해석, 특히, “의무 판례”라고 할 수 있다. 즉, 실제 발생한 사건을 두고, 최종 해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판례를 참조하여 사업을 하는 것이 좋다.

의무 판례는 대법원 위시 여러 사법 기관에서 공개하고 있지만, 멕시코 사업을 하며, 중요한 사법 기관으로, 연방 순회법원 (TCC), 대법원 (SCJN) 및 행정법원 (TFJA) 판례가 있으니, 사업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판례는 중견 기업 이상 사업체 경우, 법무담당 고문 변호사들로부터 매월 한 번씩 요약본을 받아보고, 소규모 사업체들은 YG consulting® 공개 법률 회계 자료를 참고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수 차례 강조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 “몰랐다”는 무죄 사유가 될 수 없다.
- “주변에서 많이들 그렇게 하니 내가 그렇게 하는 것도 맞는다”는 옳지 않다.
- YG consulting®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 법률 회계 사실들은 1,400 개 넘게 공개되고 있으니, 참고할 것을 부탁한다.
- 끝으로, 자칭 타칭 “전문가”들은 모르면, 확실하지 않으면, 남에게 가르쳐 주지 말았으면 한다.

※ 멕시코 조세 & 세무

퇴사 (자신 사퇴 및 해고) 후, 사회 보험 혜택 유지

멕시코 주제 한국투자 사업체 (개인, 법인) 문제에 대한 상담을 하다보면, 중견 기업 이상 사업체들 포함, 조세는 회계사만 관계된다고 오해하는 경우를 많이 접한다. 조세 (회계, 세무)는 법률과 단절되어 생각하지 말고,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해석하여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별 인식함으로써, 문제발생되고, 문제점을 지적하면, 재무부/법무부/수출입부 모두 책임 회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물론, 책임 추궁에 있어서,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에 대한 경계점이 모호한 사례도 많다).

주제에 제한하여; 사업주 (개인, 법인)는 직원을 고용하면, 고용일로부터 5 일 (영업일)안에 사회보험청 (IMSS) 등록 강제된다 (직원 의사 불개입). 사회 보험등록은 사업체 소득세 (ISR) 공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 관계, 사회보험 등록 및 지방 국세청 등록되지 않으면, 비공제 전환됨을 명심해야 한다.

사회보험청 (IMSS)은 2023 년 1 사분기 보고 자료에서, 멕시코 전체 21,796,280 명이 등록되어있다고 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12 개월 동안 798,428 명 증가), 직원이 사회보험청 등록되었다면, 직원 및 가족은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직장내 사고 발생시, 의료 보험 및 장애 연금, 노령 연금, 임신부 휴직 임금 보장, 자녀 출생 관련 의료비 및 탁아소 서비스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직원이 사회보험 등록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원이 사고를 당하였다면, 고용주는 사비로 직원 의료비를 충당해야만 한다. 충당되지 않을 시, 직원이 사회보험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면, 사회보험청은 고용주 상대, 직원 의료비와 함께, 벌금을 “capital constitutiva” 명칭으로 부가할 수 있다. 물론, 소득세 비공제는 독립 적용된다).

그렇다면, 직원이 특정 이유 (자진 사퇴, 해고)로, 직장을 그만두었다면, **직원 본인 및 가족들 (부모, 배우자, 동거인 및 자녀)**은 사회보험 혜택이 바로 중지되는지? 에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참고로, 국적 불문, 멕시코 국내 모든 직원들은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답변은; 직장 노사 관계 종료직전까지, 최소 8 주 사회보험에 등록되어있었다면, 직장 퇴사 이후에도, 8 주 동안은 사회 보험 혜택을 받는다.

또한, 8 주 이후에도, 사회보험적용을 받고자 한다면, “개인 독립 자영업자 사회보험 (Prueba piloto de personas trabajadoras independientes)” 명칭 프로그램을 등록함으로써, 노무자 본인 및 가족들이 아래 보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

- 일반 의료보험
- 노무 사고 보험 및 생명 보험
- 노령 및 퇴직 연금
- 보육원 서비스 이용 및 기타 복지 혜택

아래 링크를 참조하면 된다.

<http://www.imss.gob.mx/personas-trabajadoras-independientes>

연령에 따라, 보험금이 차이가 있는데, 아래와 같은 금액된다.

- 19 세까지: MX\$ 2,200 /년
- 20 세부터 29 세까지: MX\$ 10,200 /년
- 30 세부터 39 세까지: MX\$ 10,950 /년
- 40 세부터 49 세까지: MX\$ 12,700 /년
- 50 세부터 59 세까지: MX\$ 13,150 /년
- 60 세부터 69 세까지: MX\$ 18,300 /년
- 70 세부터 79 세까지: MX\$ 19,050 /년
- 80 세부터 : MX\$ 19,700 /년

(2023 년 9 월 25 일 연방관보 (DOF) 공고 USD\$ 1 달러 당 페소환율은 MX\$ 17.1568 발표)

일반 사보험 가입과 함께 안전하지 않은 멕시코 사회에서 보험 혜택을 보라고, 민간 보험사업자들과 일부 한인들이 광고를 하는데, 위와 같은 저렴한 멕시코 국가보험으로, 최소한 위험 대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멕시코 한인 사회 이모저모

연방 및 지방 자치주 공무원 비리 행위 성행 중

근래, 공무원 비리 행위를 직접 접하거나, 타사업체로부터 공무원 직권 남용과 같은 비리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듣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 및 지방, 각각 한 가지씩 최근 사례만 들면 아래와 같다.

연방: 멕시코 xx 소재 사업체 A 는 최근 xxx 로부터 20xx 년 발생 사업 활동에 대한 감사 시작 공문을 받았다. 이후, 감사공무원은 타법률 사무소를 통하여 해결하지 말고, P 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음을 제시함. P 는 감사 무마를 위하여, MX\$ xxxxxx 금액을 제시하고, 자신 수입료로 별도 MX\$ xxxxx 을 안내함.

지방 자치주: 요식업을 하고 있는 K 사업체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M 행정서류를 제출, 근 1 년간에 이르는 행정 처리 기간 (담당자 임명되지 않음, 담당자 3 번 교체, 하기 및 연말 휴가등)되었는데, 최근에, 행정 서류 서명자는 MX\$...을 지불하면, 1 주일내에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지급하지 않으면, 내년 중순에 다시 한번 서류 진행을 확인하고 받아야만 할 것이라는 협박 (?).

필자 멕시코 도착 2000 년부터 2010 년까지는 공무원도 아닌 꺾분들(?)이 공무원인 것처럼, ~~모각각~~ 목 (?)에 명찰을 차고, 공무원 행사를 하고 돈을 강탈하는 것이 많았다면, 근래에는 공무원임에도 신분을 망각하고, 사업체 부정확 서류를 빌미로, 금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다.

37 호-25092023



2005 년부터 전문 서비스 업무 시작 및 제공하고 있으며, 대표 김영곤은 **멕시코 변호사, 공인 회계사 포함 사업 관련 전문 기타 자격증들을 보유하고, 현지 직원들과 함께 한국어로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세계 유일 법률 회계 전문 사무소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QR Code 링크) 에서는 멕시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법률 회계 조세 관련 1,400 개 넘는 기초 자료 및 2,800 개 이상 일일 멕시코 정치 경제 사회 상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 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	
주소	Lope Diaz de Armendariz 110, Lomas-Virreyes, CDMX
전화번호	55 5202 9866
이메일	embcoreamx@mofa.go.kr

KOTRA 멕시코 시티 무역관	
주소	Paseo de la Reforma 266, Cuauhtemoc, CDMX
전화번호	55 5514 3173
이메일	mexico@kotra.or.kr

주 멕시코 한국 문화원	
주소	Temistoles 122, Polanco, CDMX
전화번호	55 6284 3247
이메일	culturacoreana.mexico@gmail.com



- YG consulting@ 대표
- 변호사 (LD)
- 공인 회계사 (LC)
- 행정 소송 전문가 (EJA)
- 연방 사법부 등록 조세 감정사
- 연방 사법부 등록 회계 기장 감정사
- 멕시코 연방 및 멕시코 시티 등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 멕시코 UNAM, 법대 대학원 박사 논문 중
- 멕시코 UNAM, 법대 대학원 석사
- 멕시코 상급 연방 행정법원 (TRIA) 전문인 파견 졸업
- 멕시코 UNAM, 회계 학사 (조기 졸업 & M.H)
- 멕시코 UNAM, 법대 학사 (조기 졸업 & M.H)
- 한국 국민대, 기계 공학부 학사

※멕시코 조세 감사 행정 실무 및 법적 대응 (1)

1 장. 조세 원칙 및 분류

총 8 장으로 구성된 본 서류에서 제일 중요한 장으로 평가될 수 있다. 조세 관련 법 이론으로, 실무 상 행정 제고 단계부터 헌법 소원에 이르기까지 인권 기준, 납세자 권한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고, 각 조세 법령이 이를 충족하는 지 여부를 확인, 사안 별 법적 대응 방법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여주는 주춧돌 역할을 한다 (사족으로, UNAM 법학부 과정을 졸업한지 20 여년 되는 시점, 학년별 과목 순서를 왜? 그렇게 순서 정하였는지 소송 실무를 통하여, 조금 이해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사회 개선 및 부조리 방지에 기반한 입법 취지 (exposicion de motivos. “4 장 법률적 방어 수단 – II.” 참조)를 선두하여 입법된 국회 법령은 행정부 집행, 사법부 판단됨으로써, 상호 견제가 중심이 된 삼권 분립이 완성되는데 사법부는 분쟁에 있어서, 법 이론에 준거하여, 입법 법률 위헌(違憲) 여부를 우선 판단 검사, 이후, 행정부 법령 준수 여부 검토, 판결문 작성, 중요성 판단시, 판례 (jurisprudencia. “4 장 법률적 방어 수단 – I.” 참조)를 통하여 하급 법원들에게 유사 분쟁 관련 동일한 판결을 하게끔 강제하고 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세계적으로는 1789 년 8 월 26 일 인권 선언문 13 조를 통하여, 경제적 능력에 비례하여, 국가 지출이 시민들에 의하여 부담되어야만 한다고 언급되었고, 멕시코 국내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멕시코 조세 정의 (租稅 正義)는 계급 및 인종 차별에 근거한 조세 철폐 언급된 1810 년 12 월 6 일 멕시코 중부 과달라하라 지역 발표 “이달고 당언 (bando de Hidalgo)”, 수 많은 조세 및 지불 능력 무관 중과세 철폐 언급 1813 년 9 월 14 일 “국가 정서 선언 (declaracion de los sentimientos de la Nacion)”에 시초(始初)한다고 할 수 있다.

이후, 거주지에 따른 조세 의무가 1857 년 2 월 12 일 헌법 30 조 III 항에 명시되었고, 1917 년 2 월 5 일 헌법을 통하여 조세 의무는 평등 및 비례하여 지출됨을 서술하였다.

현재 조세 관련 멕시코 연방 헌법 (CPEUM) 31 조 IV 항에서는, “**멕시코 국민은 거주하는 지역의 공적 지출을 비례 및 평등하게 기여할 의무를 지닌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과세(課稅) 기준은 법률에 따라 상이(相異)하다. 또한, 연방 대법원 (SCJN)은 판례 (Tesis: 2a. CVI/2007)를 통하여, 조세 의무를 멕시코 국민에 한정하고,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는 다는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법 동조 동항을 외국인에게 의무 지우고, 멕시코 국민과 동일한 권한 부여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조세 관련 법 원칙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주요하게 존재한다.

- **일반성 원칙 (generalidad):** 헌법 13 조 및 31 조 연관 된 것으로, 특정인 (개인, 법인)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법률 및 법원을 통하여 사안이 결정되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Tesis: P./J. 12/91).
- **불소급 원칙 (不遡及, irretroactividad):** 법은 그 시행 이후에 성립하는 사실에 대하여만 효력을 발휘하고, 과거의 사실에 대하여는 소급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으로서, 헌법 14 조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하위 연방 세법 (CFF) 6 조에서도 “법적 혹은 사실적 상황에서 해당 시기 적용 조세 법률에 기반하여 세금 발생한다” 직접적 기술하고 있다.

불소급 원칙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이론을 함께 보아야만 한다.

첫 번째. 획득 권한 이론 (TDA, Teoría de los Derechos Adquiridos).

TDA 는 특정 법 효력을 통하여 이미 획득된 권한 (DA, Derecho Adquirido)과 예상되는 권한 (ED, Expectativa de Derecho) 구분된다. 전자가 현실적 측면이라면, 후자는 향후 미래적 측면을 보유하고 있으며, 헌법 14 조는 단순 미래적 측면 권한에 대한 신법(新法)에 의한 영향은 불소급 원칙에 적용받지 않음을 판례 (Tesis: 2a. LXXXVIII/2001)하고 있다.

두 번째. 법률 구성 이론 (TCN, Teoría de los Componentes de la Norma)

모든 법률은 가설 및 결론이 함께 공존하여야만 한다는 법리로서, 법에서 가정된 상황 발생시, 필연적으로 연결 권한 및 의무가 생성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설이 구체화되었을시, 동시에 결론 또한 발생하지 않고, 시간 차와 함께 발생하는 상황도 있다. 그리하여, 사법부는 발생 가능 총 4 가지 경우에 있어서 불소급 원칙 침해 여부를 설명하고 있다.



https://ygconsulting.net/index.php?mid=NoticeKo&page=5&document_srl=5316